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제1차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 심층조사 결과 보고

□ 제1차 부산지역 인력 및 훈련 심층조사(수시 수요조사) 개요

- 조사방법: FGI(Focus Group Interview)
- 조사대상: 부산지역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체(3개)

연번	성명	기관명	직위	비고
1	○ ○ ○	A사	상무이사	기업체
2	○ ○ ○	B사	본부장	
3	○ ○ ○	C사	상무	

- 주요 조사내용
 - 부산지역 소부장산업의 경영환경 및 산업구조변화 대응 현황
 - 부산지역 소부장산업의 인력 현황 및 수요
 - 부산지역소부장산업의 필요 인력 및 직무능력 등
- 조사일시: 2023년 3월 17일(금) 13:00~16:00
- 조사장소: A사 회의실

□ 조사 결과

○ 부산지역 소부장산업의 경영 환경

- 2019~2022년 소부장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최근 다시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 소부장산업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국내 생산 유지를 위해 부산지역 또한 지원·발전시켜야 함
- 공작기계(공정부품)은 원청업체의 요구서에 따라 임가공만 하던 형태에서 하청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설계부터 제작까지 하여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로 변화됨
- 조선기자재산업은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으로 수주 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었음. 기술력이 아닌 가격경쟁을 하는 벤더 형태의 기업들은 환율의 증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수주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피해가 있었음. 반면에,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변화를 적시에 수주 단가에 반영할 수 있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 2019~2020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부장의 국산화가 이슈가 되었고, 소부장이라는 용어가 부각되었음. 소부장의 국산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지원 과제 또한 증가하여 소부장 기업들 수혜가 있었으며, 소부장 산업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았음. 그러나 최근 들어 소부장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으나, 올해부터 다시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음. 저희 회사의 경우 올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소부장 전문기업확인서를 신청하였으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C사)
- 소부장산업은 완제품 생산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부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는 산업임.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국내에서 소재, 부품을 생산하지 않고, 타 국가에서 대부분 수입할 경우 국제 정세에 따라 유통이 유동적일 수 있어 더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임. 소부장 산업은 국가 필수산업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계속 유지 발전시켜야 함 (A사)
- 일반적으로 원청업체는 제작 사양서를 제시하고, 제작 사양서에 따라 설계부터 제작까지 할 수 있는 하청기업을 최종 선정함. 원청에 납품하기 위해서 하청기업은 설계부터 개발까지의 개발 계획서와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음. 하청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개발을 시작함. 공작 기계업의 경우 공정마다 차이가 있으나, 이전에는 원청기업이 도면을 주면, 도면에 따라 제작만 해주는 임가공을 주로 하였으나, 지금은 연구·개발을 통해 완제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오더가 변화하고 있음. 예를 들면 방위산업에서는 요구서에 성능, 형태, 소재, 사이즈 등만 지정하여 발주하며, 하청기업이 내부 연구를 통해 100% 설계·개발하여 납품하고 있음. 대부분 기계 관련 기업들이 원청업체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납품하고 있으나, 저희 회사보다 영세한 기업들은 연구·개발할 여력 및 생산 기술이 없어 과거의 방식대로 납품하기도 함. 그러나 단순 임가공은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방산 과제의 경우 양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서 하청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7~8년 뒤에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임. 환경, 성능시험, 내구도 검사 등 한 단계마다 몇 개월씩 소요되기 때문에, 양산될 시기가 되면 기술이 도태되는 일도 많음. 기계보다 전기전자가 그 차이가 큼. 전자는 부품 발전이 워낙 빨라서 개발 시 사용한

부품이 단종되는 일도 발생함 (C사)

- 저희 회사는 전체 매출 중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이고,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85%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수출 시 가격경쟁이 필수인데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함. 중국이 가격경쟁에 참여하면서 수주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것은 수주하지 않고 있음. 가격경쟁으로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수주한 기업들은 작년에 환율이 올라 피해가 막대하였음. 저희 회사는 원자재 가격 변화를 즉각적으로 수주 가격에 반영하여서 환율 상승으로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였음. 자동차 부품산업과 같이 이미 가격이 형성되어 있거나 모기업이 있는 벤더식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단가에 바로 반영하기 어려우나, 저희 회사는 개별·맞춤형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시가나 대상에 따라 단가를 다르게 책정할 수 있음. 원자재 가격 상승을 수수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임원 회의를 매주 진행함. 피팅* 업계에서 회사의 기술력이 1위이고, 매출도 1위를 한다면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A사)

* 피팅(Fitting): 석유화학, 조선, 플랜트 등 전방산업의 설비나 구조물에 설치되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관이음쇠

○ 소부장산업의 인력 현황 및 수요

- 정부 지원으로 사무 및 생산 공정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고 있으나, 도입 목적은 업체마다 차이가 있었음
 -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자동화 설비 도입에 따라 유후 인력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 시 충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원을 감축 중이었음
 - 인력난 대응 및 원가 절감, 업무 편의성 도모를 위해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없었음. 향후 학령 인구 감소 등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비 확대가 필요할 것임
- 자동차 및 조선업 관련 소부장 기업을 제외한 부산지역 소부장 기업의 대부분이 생산직의 구인난과 높은 이직률, 고령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 부산지역은 타 지역 대비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이 없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의 중소기업 및 생산직 기피로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었음. 또한 주52시간 근무제 또한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청년층 생산인력 수급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정부 사업으로 일학습병행이 있었음
- 신규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의 경우 기계 기술 인력(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며,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었음
-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으로 구직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 개선과 함께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함
 -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야 부산의 소부장 산업 또한 주변 환경에 따라 변화될 것임
 - 근로환경을 개선하면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나,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CEO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 저희 회사의 경우 생산 기계 설비로 로봇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적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로봇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직원이 공정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신규 인력 채용은 없음. 이전에는 한 사람이 한 개 기계를 담당하였다면, 기계 설비 자동화로 인해 한 명이 두 개 이상의 기계를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에 여유가 생겼음. 잔업이 필요한 경우 인력 투입이 필요했으나, 생산 로봇이 도입되면서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인력에 수요가 없어짐. 한 팀에 평균 10~1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1~2명 정도는 여유 인력이라고 볼 수 있음. 5년 전에는 신규 채용인원이 4~50명 정도였으나, 로봇 시스템 도입으로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이 매년 6~7명씩 감소하는 추세임. 이와 더불어, 퇴직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체 인원을 감축하고 있음 **(A사)**
- 저희 회사도 정부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였음. 생산관리 차원에서 MES*를 활용하고 있는데, 생산기술 직원이 현장 장비의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음. 현장 생산직의 업무 편의성을 도모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마트 공장을 도입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인한 인원 감축은 없음. 생산직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였음. 또한, 현재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수준이 사무실에서 수기로 입력하던 업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수준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님. 물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인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측면의 장비 도입 확대는 필요할 것임. 저희 회사도 현재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중간 생산 공정을 장비 센서를 통해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임. 앞으로도 인구 상황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직무의 경우 생산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 투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산업과 같이 컨베이어벨트식 생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인력 수급 뿐만 아니라 원가 경쟁력에서도 취약할 것으로 예상함 **(C사)**

* (MES) 제조실행시스템(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물류 및 작업내역 추적 관리, 상태 파악, 불량 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출처: 네이버 지식경제용어사전)
- 저희 회사는 스마트 공장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신규 기계가 출시되면 적용하기 위해 관련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있음.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 및 기계의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인건비와 생산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기술 도입을 선호함. 결국 인건비나 생산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부장산업의 신기술이 도입될 것임.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동화 등의 신기술을 수용하고 자동화 도입으로 인한 인원 감축을 감수하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함 **(A사)**
- 자동차 및 조선업 관련 소부장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산지역 소부장 기업은 심각한 상황임. 녹산에 위치한 기업들은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생산직을 채용하고자 하나, 근처 신항에서 근무하는 일용직의 하루 일당이 중소기업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어 신항에 일용직이 편중되어 있음. 현재 저희 회사는 생산직 채용 공고를 1년 동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직 충원이 어렵고, 신규 채용되더라도 평균 근속이 6개월 미만인 실정임. 이와 반대로 고령 근무자는 장기근속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 저희 회사의 경우 63세가 젊은 편으로 회사에 고령층이 많으니 젊은 직원들이 적응하기 더 어려운 것 같음.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규모가 큰 기업들은 구인에 애로가 없으나, 그 수가 적고,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구인난으로 애로가 있음. 부산 자동차산업 기업체 중 기업 규모가 큰 사업체의 경우 구인난에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이직률이 평균 15%인 상황으로, 인력 운용에 애로가 있음. 부산은 타 지역 대비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이 없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으로 생각됨 (B사)

-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으로 구직자를 유인하고, 근무자를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부산 또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함.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유치한다면, 부산의 소부장 산업과 기업이 함께 변화될 것임. 선도 기업이 주변에 있다면 중소기업들 또한 주변 환경에 따라 함께 변화할 수 있는데, 현재 부산지역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다 보니,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되었음.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좋은 정책을 활용하여도 생산직을 채용하기 힘든 상황임. 부산지역 뿌리산업과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특성화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분위기 전환을 위한 첨단산업단지나 선도기업 유치가 필요함 (A사)
- 코로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음. 특히, 20~30대 청년층 수급에 애로가 있는데, 이는 청년층의 경우 사무직을 선호하고, 생산직 구직자는 전무하기 때문임. 이에 저희 회사는 최근에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P-TECH 등)를 활용하여 청년층 생산인력을 수급하고 있음. 주52시간 근무제 또한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임.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잔업으로 생산량을 맞춰왔으나,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기존 인력이 잔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함. 생산이 집중되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자 하였으나, 생산 기술이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 수급에 애로가 있음. 제조 단순 종사자를 많이 채용한다고 해서 증가된 생산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기계 가공 기술 인력이 필요함. 이러한 생산 기술 인력 부족이 가장 문제임. 청년층의 경우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지면서 1~2년 정도 경력을 쌓게 되면 이후 현재 회사보다 임금이 높은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일이 다반사임.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예전에 비해 생산직 평균 연령이 높아졌고, 다른 회사에 1~2년 정도 근무한 경력직을 선호함 (C사)
- 부산 소부장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 또한 문제임. 낮은 임금 및 휴식 시간 부족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상황으로 근로환경의 질 향상이 필요함. 근로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때 생산성 또한 높아짐. 그러나 이러한 선순환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투자를 망설이는 상황임. CEO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A사)

○ 소부장산업의 필요 인력 및 직무능력

- 소부장산업에서 필요한 생산직 인력은 가공과 용접 인력이며, 용접 인력난 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생산 인력은 공고 또는 관련 기술 보유 인력을 선호하나, 마이스터고 졸업생 대부분을 대기업에서 채용하고, 학생들 또한 대기업을 선호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고, 생산직이 고령화되고 있음
- 신기술 및 설비 도입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는 없었으며, 기존 인력의 직무 전환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었음
- 품질관리를 위해서 이공학사 및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선호함
- 반면에, 기계와 전기제어장치의 결합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공학 인력의 수요가 있었으며,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설계 인력의 수요가 있었음
- 설계 인력은 관련 전공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었으며, 연구개발직(설계 인력) 수급은 생산직보다 상대적으로 충원이 용이한 편임
- 저희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은 공고 출신이거나 저학력이라도 실제 용접 기술을 보유한 인력인데, 용접 기술 인력을 수급하는데 애로가 있음. 현재 신입을 채용하면, 6개월간 교육과 일을 병행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공고 출신이면 금속 가공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어 선호하지만, 대기업에서 대부분 채용하고 있음. 특히 마이스터고는 삼성, 현대에서 모두 채용함. 학생들도 대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 생산직이 고령화되고 있음. 이제는 퇴직한 고령 직원의 자리를 충원하기 어려운 실정임 (A사)

- 현재 생산직에서 필요한 인력은 가공과 용접 인력임. 조립은 가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높지 않음. 가공과 용접 인력 중 용접 인력의 충원이 더욱 어려움 (C사)
- 제가 느낀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부산지역 기업의 2세들이 기업 경영을 지속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임. 사업을 지속하지 않으니 세대교체 및 신기술 분야 관련 인력 채용 등 미래 대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B사)
- 신기술 및 설비를 도입하면 해당 직무의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이 직무를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음. 당장은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지만, 쉽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비 및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음. 업무가 가중된다는 근로자의 반발도 있지만, 실제로 어렵지 않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임. 물론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이공학사나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실무 습득 능력이 좋아서 선호하고 있음 (A사)
- 미래 산업에서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계와 전기전자를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전자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전기제어장치를 위한 전기공학 인력을 보강해야 하나, 전기전자 관련 인력은 기계 관련 분야보다 수급이 어려움. 전기전자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할 수 있지만 전기전자업체가 기계업체에 발주를 주는 형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협력할 전기전자업체를 찾기 어려움. 그리고 연구·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설계 인력이 필요해짐. 설계 인력은 관련 전공 대졸자를 주로 채용하고 있으며, 설계 기술을 익히며 근무하고 있음. 석박사는 연구개발직(설계 인력)의 30% 정도이며 진동 해석 등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연구를 담당함. 연구개발직은 생산직보다 충원이 상대적으로 용이함 (C사)

○ 부산지역 소부장산업의 산업구조변화 대응 현황

-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 및 대응을 위한 부품 및 장비의 변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익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화석 연료 수요 감소에 따른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은 필요할 것임
- 피팅 업체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액화시키는 공정의 단계가 석유화학의 정제 단계보다 축소되어 해당 공정에서 소비하는 부품 또한 축소됨. 이러한 시장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만 내부적 공정 개선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은 도입 중이었음
- 전방산업이 활성화 되면 연관산업 또한 활성화될 것임
- 공작 기계의 경우 산업별로 요구하는 복잡성 및 정밀도에 따라 첨단설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으로 진출할 경우 기계·설비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때 안정적인 매출 창출이 우선 담보되어야 투자가 가능함
-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내연기관 감소로 산업 전환을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외 소부장산업의 경우 산업 전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기업 등의 부재로 산업 전환이 더딘 상황이었음

- 생산 공정에 따라 생산 전 단계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산업이 있었으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공정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등 단계별로 생산 자동화 도입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스마트 공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음
- 스마트 공장 구축에 정부지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기업체 자부담을 통한 스마트 공장 구축은 미흡한 실정임
 -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이나 장비 변화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설비·기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현재는 기존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수준의 투자를 주로 하고 있음. 석유화학은 정제 단계가 많아서 피팅 수요가 많지만,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액화시키는 공정 단계가 적고, 이에 따라 공정에서 소비되는 설비, 부품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산업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는 어려움. 화석 연료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로 신중하게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전방산업이 활성화되어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임. 연구나 설비 관련 기술은 계속 발전 중임. 과거에는 열을 계속 가하는 방식이었으나 열이 아닌 수압을 가하는 방향으로 공정을 개선하고 하고 있음 (A사)
 - 산업별로 요구되는 형상의 복잡성이나 정밀도에 따라 고급 장비 및 기술이 필요한 경우와 일반 장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됨. 한 번에 4면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는 1면씩 가공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장비를 활용함.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한다면 최종 제품군에 맞춰서 설비 투자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이 뒷받침되어야 함 (C사)
 - 부산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속도감 있게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연기관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이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음. 현대, 기아 등 모기업의 생산 방향성을 따라가는 것인데, 모기업이 가진 단점도 분명 있지만 미래에 대응하는 속도를 향상시켜 주는 것은 장점임. 신산업에 대한 투자로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감수하고 투자를 하고 있음. 다행히 최근 자동차 산업의 매출이 일시적이지만 증가하고 있음. 반면에 기타 소부장은 모기업이 없고 감시 감독을 수행할 확실한 거래처가 없어서 산업 변화 대응이 더딘 편임 (B사)
 -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였음. 다만 전사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정별로 적용하고 있음. 생산 현장이 과거 방직 공장이나 대장간 같은 시설로 수백 개씩 구성되어 있어 생산 공정 전체를 스마트 공장으로 교체하기 어려움. 현재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것은 쇠를 달구는 것과 같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공정으로 부분적으로 로봇이 대체하고 있음. 로봇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인하면서 스마트 공장을 적용하고 있음. 자동차 라인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공정이 아니라서 스마트 공장의 전사적 적용이 어려움 (A사)
 - 정부지원금은 스마트 공장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스마트 공장이 기초에서 심화 단계로 발전됨에 따라 부산의 소부장 기업들도 정부지원금을 활용해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있음. 정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구축에 투자하는 것으로 순수 자부담으로는 투자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B사)

○ 기타 건의사항

- 고용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기업에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을 건의함
- 경영자 대상의 산업구조변환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인식 개선 교육과 정책이 필요함
- 기업 대상 정부지원의 사후 관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 녹산 산업단지의 경우 출퇴근 시간의 교통편이 부족한 편으로 출퇴근 시간과 그 외 시간의 배차 간격을 상이하게 조정하는 등의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함
- 산업단지의 경우 버스 정류장과 기업까지의 거리가 먼 편으로 대중교통과 공유 모빌리티의 연동을 통해 근로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 등의 모색이 필요함
- 고용장려금을 기업에게 주고 있는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기업들은 인건비를 지원받겠다고 해서 직원을 추가 채용하지 않음 (B사)
- 회계 처리에서도 지원금 관리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함. 급여 외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바로 지급하고 이체 영수증을 증빙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A사)
- 산업구조변화 대응과 구인난 해소 모두 기업 CEO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힘들. 기업 CEO나 2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함. 다만, CEO들은 매출에 도움이 되는 교육만 청강하기 때문에 교육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 CEO들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부족한데, 대졸자를 채용할 때에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현재에 안주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설계하는 회사들이 부족함.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자의 가치관을 바꾸는 교육 및 정책이 필요함 (B사)
- 정부지원금이 투입되는 지원사업은 회계감사와 더불어 현장 근로감독도 강화해야 함. 근로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지원을 받았으나, 컨테이너를 근로자 휴게실로 배치한 업체도 많음. 기업 대상 지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 이후에 기업들이 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야 함. 새로운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원 제도 및 지원 수혜 기업들의 사후 관리를 통해 보완하고, 지원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A사)
- 실제로 휴게실 및 최저임금 적용 등에 노동자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는 강한 단속이 필요함. 실제 기업에서 노조나 고용부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즉각 반응하고 있는데, 과감한 단속이 CEO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B사)
- 강서구의 교통 상황이 다른 부산 산단에 비해서도 열악한 편임. 사상과 하단을 통해 들어오는 대중교통의 배차간격이 일반적으로 30~40분임. 출퇴근 시간에는 배차간격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 외의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을 1시간으로 늘리는 등의 조정이 필요함 (A사)
- 배차간격뿐 아니라 버스정류장에서 회사까지 2~3블록을 도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음. 미음, 녹산산단은 출근하려면 약 2시간이 소요됨 (B사)
- 부산시에서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 등의 공유 모빌리티와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통합 운영하는 교통 제도를 조만간 도입한다고 하는데, 도심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끝.